현불 논단

# 한국정치와 口業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모든 구업 형태 있는 韓정치판**
**현장서 망어 · 양설 · 악구 난무**

**관용없고 미움 가득한 정치용어**
**개인적 차원 넘어 공업으로 확대**
**이념 · 계층 · 지역 등 갈등 심화**

**구업 극복하는 방법 '愛語' 사용**
**구성원들 '연기적 시민의식' 필요**
**품격은 언어서 나옴을 명심하라**

언어를 철학적으로 고찰한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은 그의 '그림이론'에서 "언어는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라고 주장한다. 즉, 언어와 세계는 동일한 대응 관계를 갖는 것으로 언어의 구조가 세계의 구조를 그대로 나타낸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론을 한국의 정치판에 대입해 보면 한국 정치의 현실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근래에 한국 정치의 마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언어의 게임을 보면 이 구업을 어찌 담당할까 하는 근심이 생긴다.

불교의 업(業) 이론에 '삼업'이 있다. 즉 몸으로 행하는 신업(身業), 말로 행하는 구업(口業), 마음으로 행하는 의업(意業)이다. 한국 정치판은 구업의 모든 형태가 나타난다. 망어(妄語), 양설(兩舌), 악구(惡口), 기어(綺語) 등이 한국 정치 언어 현장의 큰 흐름이다. 말의 칼날이 날카롭고 여백이 없어 듣기만 해도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구업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업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공업은 집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이다. 이것은 한국정치사회 구조의 특징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갈등과 균열의 도가니 속에 있다. 이념 갈등, 계층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 모든 영역에 갈등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그중에서 이념적 갈등이 모든 갈등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정치 집단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도식화되고 이분법적인 정치 용어가 난무한다. 이러한 용어에는 타자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없고, 계산과 미움이 가득하다. 이를 어쩌라. 우리가 받을 공업의 결과가 무섭다.

불교의 업 이론의 핵심은 업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내가 어떤 선택을 하여 선한 업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악한 구업을 극복하는 방법은 애어(愛語)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자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치 집단에 생명줄을 대고 있는 정치인에게 이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치적 이해집단의 뜻을 어기고 용기를 부린 정치인이 겪는 고통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본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연기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각자는 독립적이고 원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호혜적이며 네트워크화되며 상호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연기적 시민의식은 큰 바다가 되어 미움과 혐오로 가득 찬 정치인의 언어들을 거품으로 삼켜버릴 것이다.

현대사회는 통신 과학의 발달로 인해 점점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를 강요받고 있다. 비대면 관계에서는 도덕적 나태와 도덕적 무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사회는 익명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사회에서는 그만큼 도덕적 각성과 긴장이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폭력적인 댓글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자의 '품(品)'은 '입구(口)' 세자가 합성된 용어다. 사람의 품격은 바로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필자는 삼업 가운데 구업이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 선한 구업을 실천할 수 있다. 지난 한글날에 어느 정당의 대변인은 "바른 말, 고운 말로 정치의 품격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아득하게 느껴진다.

사족 하나를 붙이고 글을 마친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좌기예(挫基銳)의 지혜, 즉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는 지혜를 우리나라 정치인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 불교 홍포 '설법 원력' 세우자

〈승만경〉은 승만부인이 부처님께서 중생을 근기에 따라 설법한 일승(一乘)의 대승방편 법문을 널리 홍포하기 위해 사자후를 한 경전이란 뜻인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의 원래 이름을 줄인 대승경전이다.

〈승만경〉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법수지 전법원경'이다. 승만부인은 아유타국의 우칭(友稱) 왕에게 시집을 갔다. 부모님(사위국의 파사익왕과 말리왕비)은 시집간 딸을 생각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글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편지를 보낸다.

승만부인은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 "모든 사람은 남녀, 신분의 차별이 없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인 '여래장(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설법을 듣고, 또 미래세에 '보광여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승만부인은 부처님 앞에서 십대원(十大受)와 삼대원(三大願)을 세우고, 부처님의 올바른 정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원(正法攝受願)과 함께 부처님의 올바른 정법을 널리 홍포하겠다는 서원(說法願)을 다음과 같이 세운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어받아 올바른 정법을 널리 펼 것을 서원하나이다. 보살이 세운 갠지스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원은 모두 이 하나의 큰 원 속에 포함됩니다.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큰 원입니다."

〈승만경〉은 재가신도 여성이 경전의 설주(說主)가 되어 부처님을 대신하여 외도를 절복시키고 정법을 홍포하겠다고 적극적인 파사현정의 사자후 설법을 하는 유일한 경전이다. 깨달음에는 승속의 차별이 없고, 불법을 홍포하고 수호하는 주체가 결국 재가불자임을 밝힌 것이다.

한국불교 교단의 주체는 여성불자이다. 설법을 하는 사람은 주로 법사이지만 설법을 듣는 대상은 대부분 여성불자이다. 사찰의 불사를 하는데도 재정적인 보시금을 여성불자가 담당하고 있다. 법사는 여성불교학에 관심을 갖고 여성을 상대로 설법하는 주제와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남녀평등 사회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과 동일하게 되었고 사회 활동도 활발하다. 유럽에서는 여성 지도자가 세상을 이끌고 있다. 우리 불교교단에서도 시줏돈만 내는 보살이 아니라 교단의 경영에도 참여하고, 나아가 부처님의 정법을 설법할 수 있는 수많은 여성 법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한다.

이웃종교에서는 설교를 못하는 목사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낸다고 한다.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 "부처를 팔아서 삶을 이어가는 '가사 입은 도둑'이 있다. 그는 입은 있어도 설법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승려(啞羊僧)'이다"라고 했다. 모든 불자는 설법원(說法願)을 세워서 경전의 사구게 한 구절이라도 이웃을 위하여 설명하는 위타인설(爲他人說)의 설법원을 세워야 한다.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는 길은 설법으로서만 가능하다. 무지와 몽매함을 일깨우는 길은 교육뿐이다. 한국 종교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침묵이 미덕이 될 수는 없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 변화된 산사 축제 새로운 기회

코로나19 사태는 매년 가을산사를 장엄했던 법석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불교계는 지역적 특성과 사찰의 역사를 반영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특히 가을에 개최되는 행사가 많다. 단풍과 꽃무릇 등 가을의 정취와 어우러진 경관 덕도 있지만, 조계종 교구본사 등 주요 사찰의 개산대제 등 의미 있는 법석이 이 시기 집중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년과는 다른 형태의 신풍경들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감염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정을 취소한 사찰들이 아쉬움을 전하는 가운데, 가능한 수준에서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새롭게 시도하는 사찰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중 월정사는 '2020 오대산 문화포럼'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시도로 호평을 받았다. 행사 자체를 단순히 영상으로 송출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도량 곳곳에 전광판을 설치해 온라인 참가자와 현장 참가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현장에서 함께 만나 즐기고 공감하는 문화행사는 축소됐지만, 대신 환경과 인류의 미래, 명상과 평화 등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아젠다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는 위기다. 사찰과 불교계가 그동안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혹은 미뤄뒀던 여러 사안들이 급작스럽게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기에 바꿔 생각하면 기회일 수 있다. 변화에 발맞춰 한걸음 내딛을 때 미래를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각 사찰들이 여건에 맞는 선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10 · 27법난 40년, 대국민 추념 필요

40년 전인 1980년 10월 27일, 당시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은 불교 정화란 미명 아래 스님 153명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어 3일 뒤인 10월 30일에는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병력 3만 여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 5000여 곳을 일제히 수색했다.

억불숭유시대인 조선조 때에도 없었던 이러한 법난이 발생한지 40년이 지난 2020년, 불교계가 10 · 27법난 당시 아픔을 새로운 모습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천도재와 기념식은 물론이고 전시회와 유튜브 영상물, 신도교육 등 문화적인 방법으로 법난의 사실을 알리고 기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10 · 27법난으로 인해 떨어졌던 불교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과제가 있다. 신군부의 수뇌였던 전두환 씨의 참회와 함께 불교계 내부의 부역자들을 밝혀내는 것과 그리고 이를 조장한 책임자들이 죄과를 치루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10 · 27법난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로 인한 명예 회복에 공감하는 것이다.

10 · 27법난은 유튜브 생중계,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018년 혜성 스님의 입적 등 당시 피해자 스님들의 세납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국민참여가 필요하듯 10 · 27법난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국민참여가 절실하다. 비슷한 시기 발생한 5 · 18민주화 운동의 경우 영화 제작 등은 물론이며 특별공모전과 함께 온라인 서포터즈 발족, 뮤직비디오 제작 등이 줄지어 진행되고 있다. 40주년을 계기로 특별 공모전과 함께 다양한 대국민 추념기회가 열리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 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